광주 식당 종사자 보건증 발급 검사 "참 수치스럽네"

보건소 전용장소 없어 10만명 화장실서 셀프 항문검사 민망

남녀 뒤섞여 검사 모멸감…'인권 보호 사각' 대책 마련 시급

지난 7일 광주시의 한 보건소 내 임상병리실.

음식점 취업에 필수적인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를 받던 A(여)씨는 당황한 듯 얼굴을 붉혔다.

A씨의 안색이 갑자기 변한 것은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길이 14cm짜리 튜브면봉(TUBE SWAB)을 받고 나서 "바로 옆 화장실로 가서 항문에 면봉을 3～4cm 정도 삽입 후 서너 차례 돌려준 다음 꺼내 튜브에 넣어 다시 가져오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항문검사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던 데다, 주변에 보건증을 발급받으러 온 남자들도 3～4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마저 느껴졌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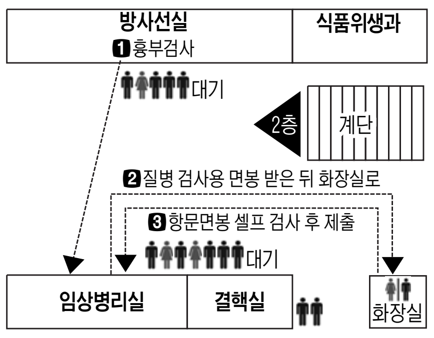
A씨는 "남녀가 뒤섞여 (보건증)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항문에 면봉을 넣고 다시 제출하면서 민망한 생각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면서 "성별과 연령대를 떠나 모두가 수치심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최소한 남녀 구분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음식점 취업·아르바이트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보건증 발급 검사 과정에서 광주지역 보건소들이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하지 않는 낙후한 시스템을 유지해 10만여 식당 종사자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하루 평균 수백여명의 시민이 남녀구분도 없는 검사실과 공중 화장실에서 면봉으로 자신의 항문을 '셀프검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인권도시 광주'라는 명성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다.

9일 광주시와 광주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내에 있는

■광주 모보건소 보건증 발급 검사 과정



요식업체 등의 보건증 발부가 필요한 업소는 휴게음식점 2944곳, 일반음식점 1만6842곳, 단란주점 492곳, 유흥업소 807곳, 제과점 526곳, 위탁급식업 252곳 등 2만1863 곳이 넘는다.

광주에서만 식품위생법에 따라 2만1863곳의 업소에서 10만여명에 이르는 종사하는 자(아르바이트생 포함)들이 관할 보건소에서 해마다 연 1회씩 1500원씩 내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받아 제출하고 있다.

검사는 보건소를 방문해 방사선실에서 흉부 엑스레이(결핵 등 검사) 촬영과 임상병리실에서 '튜브면봉'을 이용해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 등 기타 수인성 질병 여부 등을 검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각 보건소별로 항문검사인 '튜브면봉' 검사를 할 수 있는 전용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보건소 내 공중 화장실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사자들은 화장실로 이동해 직접 항문 속에 준비된 면봉을 찔러넣는 '셀프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과 수치심 등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건증 검사를 하는 동선이 다른 검사자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또다시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게 검사 경험자들의 말이다.

실제 화장실에서 항문검사 후 튜브에 다시 넣고 20여m(광주 5개 보건소 평균 거리)정도 떨어진 임상병리실을 찾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다시 찾은 임상병리실에서도 남·여 구분없이 항문검사를 한 면봉이 들어있는 튜브를 받은 뒤 타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꽂아놓는 등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조차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튜브면봉' 검사에 대한 불만이 높지만, 현재로선 이를 대체할 만한 검사방식이 없다는 점에서 남녀가 구분된 검사실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면봉검사가 가장 현실적인 검사 방법으로 대안이 없다"면서 "이같은 보건증 발급과정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국 279개 보건소가 모두 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없을 경우 당사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업소의 대표자는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청소년 끌어모아 자동차 보험사기

광주북부경찰, 20대 주범 구속

후배 등 34명을 피라미드식으로 모아 보험사기단을 조직한 뒤, 차 사고를 가장한 사기 행각을 벌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주범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7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4000만원 상당을 보험 합의금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26)씨를 구속하고 공범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차 사고를 가장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조사결과 김씨는 공범 후배 4명으로부터 18～19세의 청소년 30명을 소개받는 등 피라미드식으로 보험사기단을 모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주범인 김씨의 지시에 따라 치밀하게 이뤄졌으며, 공범 4～5명이 타고 있는 앞차를 공범 1명이 운전한 차가 차량이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 뒤에서 살짝 들이받는 수법이 동원됐다.

앞차 탑승자 전원은 곧바로 입원한 뒤 보험사 직원에게 퇴원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1인당 80만～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 공범들에게 10여만원씩을 나눠주고 나머지 돈을 가로챘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승진 축하자리 부하직원이 술값 계산…해임 처분 위법

김영란법과 대조적인 법원 판결 '눈길'

이른바 '더치페이법'으로도 불리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과 대조적인 법원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정훈 부장판사)는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경위와 B경위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월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C경장으로부터 2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요구하는 등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파면됐다. A경위는 이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통해 파면보다 낮은 해임처분을 받았다. B경위는 C경장의 승진을 도와준 명목으로 승진사례비 일부를 나눠 갖기로 했다며 해임됐다.

이들은 상관인 D씨에게 승진 인사를 앞두고 'C씨의 인사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들 경찰관은 이전에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멘토·멘티' 관계를 맺는 등 친분이 있었고, 근무지를 옮긴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면서 "이에 따라 C경장이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비용을 계산한 것은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감사 겸 승진 자축의 의미에서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교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 경위와 B 경위의 업무가 인사와는 관련이 없고, C경장의 상관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승진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성평등 사회 만들자" 광주시 북구와 (사)광주여성민우회다솜누리가 지난 7일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폭력예방 캠페인을 열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자'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소송 11일 대법 판결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사업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11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담양군이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 메타프로방스 사업 소송과 관련해 11일 판결 한다.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강모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메타프로방스 민간사업 시행자인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에 대한 담양군의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 시행자가 하는 지하 1층, 지상 4층 78실 규모의 관광호텔 공사가 터파기 상태에서 현재까지 16개월째 중지됐다.

담양군은 실시계획 인가 처분은 고법의 판단처럼 군수 결제일이 아닌 공고일(2012년 11월 1일)이 기준 시점이 되어야 하고 이럴 경우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2.6%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을뿐더러 법인 분할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있기에 고법 판결에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초등생 4명 때린 40대 검거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들을 때린 40대 남성이 폐쇄회로(CC)TV에 폭행장면이 찍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후 1시 20분께 여수시 돌산읍의 한 아파트 앞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4명이 A(46·무직)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사건 당시 현장이 찍힌 아파트 CCTV 영상에는 한 남성이 학생들을 쫓아와 빰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에 찍힌 화면을 바탕으로 주변에서 탐문 수사를 벌여 지난 3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학생들이 칸막이를 발로 차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냥 가버려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도시락 훔쳤다가 벌금 미납 탄로

쌍나팔

○…하루종일 굶주리다 배달업체 도시락을 훔쳐 먹고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과거 벌금미납 사실이 탄로나 쇠고랑.

○…7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A(52)씨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한 빌딩 앞에 배달업체가 잠시 놓아둔 21만원 상당의 고급 도시락 7개를 무단으로 가져간 뒤 4개는 허겁지겁 먹고 나머지는 머물던 여인숙으로 가져갔다가 붙잡혔다는 것.

○…경찰에서 폐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과거에도 고물 등을 훔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아 수배를 받던 중이었던 사실이 탄로.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k-land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치평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신안동 주상복합상가 전남대정문인근 (1층, 2칸) 일반물건

건물 32평 매매가 3억5천
(융자 2억5천, 보증금 5천, 월 143만원)

【법원 경매/공매】

토 지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산234
토지 11,970평 **감정가 44,000,000 최저가 44,000,000**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정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계획관리지역 큰도로접 해안가
토지 1200평 **감정가 103,000,000 최저가 103,000,000**
▶고흥 풍양면 매곡리 바닷가인근 대로접 학교부지
토지 1006평 **감정가 58,000,000**

공 장

▶광산구 장덕동 하남일반산업단지 내위치
토지781평 건물518평 **감정가 1,786,000,000 최저가 1,250,000,000**
▶장성 서삼면 송현리 내연마을인근 계획관리 자연취락지구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526,000,000**
▶나주 왕곡면 송죽리 계획관리지역 분뇨쓰레기처리
토지 7693평 건물 1548평 **감정가 2,928,000,000 최저가 2,928000,000**
▶나주 세지면 성산리 식산마을인근
토지 25643 건물 5002평 **감정가 2,554,000,000 최저가 1,787,000,000**
▶나주 다시면 월태리 원동마을내
토지 754평 건물 325평 **감정가 591,000,000 최저가 414,000,000**

근 린 시 설

▶남구 송화동 광주대 인근
토지 138평 건물 492평 **감정가 1,227,000,000 최저가 859,000,000**
▶광산구 장덕동 하남일반산업단지 내위치
토지781평 건물518평 **감정가 1,786,000,000 최저가 1,250,000,000**
▶장성 삼계면 주산리 백산마을인근
토지 176평 건물111평 **감정가 387,000,000 최저가 271,000,000**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3493평 건물 1734평 **감정가 49억 최저가 14억**

일 반 물 건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담양군 담양읍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서구 중심상가 4층건물 현제 성업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현재 성업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업종 가능 **매매가 17억**
▶서구 마륵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광산구 비아동 아파트자리 토지 약 2000평 **매매가 평당 280만원**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물관인근
토지 359평 **평당 40만원**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